

‘AI 집적단지 공사 중단’... 광주시 추경 제동 걸리나

일부 시공업체 ‘경영난’ 사업포기 올해말 공사완료 계획 차질 우려 시, 추경 35억 편성... 시의회 ‘난감’ 의회 “관리감독 부실한 결과” 지적

광주시가 핵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공사가 시공업체의 경영난으로 일부 중단된 데 이어 추가경정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돼서다.

지난해 본예산에 광주시의 요구액을 전액 반영한 광주시의회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 예산을 반영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8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연면적 2만4829㎡(총사업비 426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은 지난 2020년 착공해 올해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뒤 2조원을 투입해 국가 AI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2단계 사업(2025~2029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한 시공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실증·창업동(지하 1층 지상 7층·6581㎡)이 6층 철골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중단돼 1단계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말 완공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지난해 AI 집적단지 조성에만 국비 525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427억9000만원만 반영, 약 1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이번 추경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의결 당시 어려운 세수 속에서도 광주시의 주요 현안이라는 명분으로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 191억원 등 예산 대부분을 반영했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단계 사업은 물론 2단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자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결과”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시가 세입 없이 추경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광주시의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시

공업체의 상황도 관리 감독에 고려할 사항이었다. 자칫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광주시의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공사가 중단된 만큼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분리발주한 공사의 철골 공정의 연관성도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분리 발주해 실증·창업동의 철골 공정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전체가 중단된 상황은 아니다”며 “하루빨리 공사 주관을 선정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올라간 건설비의 경우 물가상승률, 법령 개정에 의해 발생한 추가 경비로, 이는 국비가 아닌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또 추경 예산의 경우 시공업체 폐업 전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kim@jnilbo.com



농협 장성복합물류센터 개장식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종택 전남농협지역본부장과 전남 관내 조합장, 이개호 국회의원,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 등이 8일 장성을 유방리에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호남권역 최대 물류기지 ‘농협 장성복합물류센터’ 개장식을 갖고 있다. 호남권역 최대 물류기지인 장성복합물류센터는 대지면적 91.395㎡ 규모로 호남농산물물류센터(농산물), 호남자재유통센터(농자재), 마트사업호남지사(생활물자)로 구성됐다. 김인배 기자

“햇빛연금” 덕 많이 봤는데”...

1면서 계속 자라분교의 경우 2020년 재학생 수가 3명으로 줄면서 관련법에 따라 휴교가 결정됐지만, 햇빛연금 지급 이후 주민등록상 취학 가능 아동이 15명으로 늘면서 폐교 유예가 결정됐다.

● “태양광 발전량 늘리기 주력”

신안군이 대대적인 태양광 발전을 시도한데는 군 면적 전체가 섬으로 이뤄져 있어 육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건이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효율은 4시간으로 전국 평균 3.6시간 보다 앞서고 지역 풍속은 7~7.4%로 해상 풍력 발전의 입지로도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육지 면적(656km²)과 바다 면적(1만

2646km²)을 더하면 서울시의 22배 규모로, 평균 효율이 17%에 이르는 태양광과 28% 수준의 풍력 발전을 지속하면 산유국과 비슷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가능하다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기존 안좌도, 자라도 등 5곳 외에 태양광 발전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햇빛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주력하겠다. 타 읍·면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를 확대 설치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기존 5곳의 태양광 설비를 늘려 태양광 발전용량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100kW 소규모용량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들의 직접투자 유치 독려로 발전량을 늘려나기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 대형 설치작품 존치

작가측 이전·철거 반대 입장 시 “천 교체 비용 절감 노력”

광주시가 잔디광장의 대형작품 ‘기원(PRAYER)’에 대해 이전·철거를 추진했지만 고(故) 알렉산드로 멘디니 작가측의 반대로 최종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열린청사 공사계획에 따라 잔디광장의 대형 설치작품 ‘기원’을 이전·철거하기 위해 작가의 유족과 논의했지만 반대 입장을 피력해 존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탈리아 방문길에

작가 측과 만나 작품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까지 했지만 유족들은 “고인의 작품을 훼손할 수 없다”며 이전·철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작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예산 2300여만원을 들여 훼손된 작품의 천을 교체한 뒤 광주시청 광장에 다시 세웠다. 높이 16.5m, 직경 18m 크기인 작품은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지난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8억원을 후원받아 제작해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 설치했다.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한 7개의 모빌식 원형 조형물 길을 천으로 감싸 광주 발전과 시민 소망을 상징했다. 천은 계절 변화에 따라 교체하도록 설계됐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청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m 높이의 화단 담장을 철거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열린청사 공사를 시작하고 기원 작품도 이전·철거도 고려했다.

유족들이 반대함에 따라 존치하는 대신 광주시는 매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천 교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훼손이 확인 될 경우 교체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분할합병공고

주식회사 아진(이하, “갑”이라한다)과 주식회사 형제전력(이하, “을”이라한다)은 2024년 5월 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그 재산의 (영인) 일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전북-00000))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합병 제30조의 9 제2항에 의거 “갑”의 분할되는 재산, 부채 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다 음

1. 양도(분할, 합병)대상 전기공사업의 종류: 전북-00000
 2. 양도(분할, 합병)예정일: 2024년 6월 8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1) 기 간: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8일 (2) 제출처: (갑)양도자 또는 (을)양수자

(“갑”) - 상 호: 주식회사 아진
 - 대표이사: 김 영 록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1번로 88, 102호 (오선동)

(“을”) - 상 호: 주식회사 형제전력
 - 사내이사: 유 경 희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분반월길 12(산월동) 2024년 5월 9일
 주식회사 형제전력
 사내이사 유 경 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 발전사업의 명칭 : 진도그린 태양광발전소 4호
- 발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1039 외 27개 필지
- 발전소 면적 : 101,731.5㎡ (30,773.8평)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 발전설비 용량 : 태양광설비 17.73MW
 - 사업개시예정일 : 2027년 7월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김해나
-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 5. 9. ~ 2024. 5. 15. (7일간)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kjsup153@gmail.com
 - 연 락 처 : 070-4667-6566

주식회사 진도그린태양광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웨)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금 매 개발부지

나주 빛가람동 대항아파트 공사장 앞
 대 1,167㎡(353) 유일한 상가용지
 아파트 건축완공시 평당 1천만이상
 완전대박 매가 22억 절충가

02-731-6373

더글로벌코리아(주) 서울 중구 다동
 김경통 등록 11140-2018-00053